

참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의 목적은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종교는 신에 대한 것이며 그 목적은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은 영이요, 영은 마음이므로 종교는 천국을 이룬 인간의 마음 속에 존재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데 영원히 사는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어야 참 종교인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천국을 이루는 것이므로 신의 학문이 곧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신이란 것은 곧 영이요, 영이라는 것은 마음이므로 마음속에 종교가 존재한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신학을 논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성경에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호 14:5)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이긴자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긴자에게 이슬과 같이 임한다는 말이요, 그 이긴자가 백합화 같이 핀다는 뜻입니다. 합동 찬송가에도 '구주는 산꼭에 백합 명란한 새벽별 만인 위에 뛰어나시는 줄세'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세주는 백합화'라는 찬송을 매일 하고 성경에 이슬이 내리는 이긴자가 백합화같이 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늘 읽으면서도 이것을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구주는 명란한 새벽별이라고 했으니 그것은 '밝은 별'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종교

또한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준

다고 했는데 새벽별이 이 세상의 별이라면 효성과 금성을 말하는데 효성과 금성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새벽별에 해당하는 이름을 준다고 해야 이치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이름이 밝은 별(熙星)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예언서 '격암유록'에도 이 사람의 성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그동안 말한 대로 온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다가 맞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이후로 계속해서 장마를 못 지게 하고, 태풍을 불어오지 못하게 하여 풍년들게 하고, 세계 공산주의를 없앤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 사람은 죽지 않는 비결의 말을 과학적으로 논합니다. 구세주는 죽지 않는 비결을 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학을 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성경이나 불경에는 써여 있지만 이 사람은 그 위에 피가 썩어서 죽는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의식이 욕심만 부리면 피가 썩습니다. '나'라는 의식이 신경질 내고 화를 내도 피가 썩습니다. 피가 썩지 않는 비결만 알면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성경이나 불경에서 왜 '나를 항상 버려라'고 했느냐 하면 '나'라는 의식이 조종하는 대로 생각만 하게 되면 피가 썩는다는 것을 이 세상 과학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나를 버려라'라



구세주 조희성님

는 말은 내 마음을 버리라는 말이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바로 내 마음 안에서 행지 말라는 말이요, 내 마음이 주장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수박겉핥기로 성경과 불경을 읽으면서 도를 닦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나'와 더불어 평생을 투쟁해서 '나'를 이긴 자입니다. 나를 완전히 이겼으므로 죽지 않는 비결을 압니다. 생각하는 대로 피가 변하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피로 변하여 썩지 않는 피로 변합니다.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라는 말이 있는데 평상시에 악한 마음을 먹으면 악한 피로 변해서 얼굴과 몸이 악한 얼굴과 몸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인상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한다는 것은 새로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날 과학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은 영생의 신이

요, 영생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므로 영생의 확신을 가지면 피가 하나님의 피로 변하면서 하나님의 얼굴과 몸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으려 죽을 수 없고 늙으려 늙을 수 없는 몸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또 영생의 확신을 가지려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생명과일을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생명과일이요, 생명과일은 성경말이요, 성경말은 영적 말이요, 영적 말은 하나님 말이므로 생명과일은 영적 과일이요, 바로 영생을 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생명과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자가 진짜 구세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자가 진짜 구세주인 것입니다.

성경이나 불경, 격암유록에는 이슬을 내리는 자가 구세주요, 생미복불이요, 정도령이라고 했습니다. 정도령이 나오면 천지가 개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세상 사람들은 영이 무엇인지 신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생명이 영(요한 1:1)'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명이 피요 피가 생명(레 17:11)'이라는 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피작용이 마음작용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잠 4:23)'는 말과도 짝이 맞습니다. 즉 마음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영이라면

마음작용은 피작용이므로 피가 곧 영이라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의 피가 죽은 사람의 영이요, 그 피는 썩어서 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식들 속에 있으므로 죽은 사람의 영이 천당 갔다 지옥 갔다고 하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피가 후손들 속에 있으므로 현재 살아 있는 사람의 핏속에는 조상 대대로의 영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태초의 조상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의 영도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종교는 영원히 사는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

종교의 근본목적은 진리 구현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나와야 종교가 존재하는 것이요 교회만 짓는다고 종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영원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마음이지 죽는 마음은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천국을 이루어야 종교가 되는 되는 것인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있나니라'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어야 참 종교인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천국을 이루는 것이므로 신의 학문이 곧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신이란 것은 곧 영이요, 영이라는 것은 마음이므로 마음속에 종교가 존재한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변화

신이 정확히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먼 곳, 잘 알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진리는 평범한 곳에 있다고 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선에서 신을 찾아보아도 충분히 그 존재를 감지하고 살 수 있다. 인간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의 묵시와 역사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이성적이고 합리적 사고로 분별하여 알아보자.

신은 영적인 존재

신을 흔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로 인식하는데, 자세히 세상 만물을 살펴보면 영적인 것이 아닌 것이 없다. 오늘날 과학이 이미 입증해 놓았다.

과학적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쫓아 더 이상 쫓을 수 없는 원자의 상태로 보면 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핵과 중성자를 중심으로 전자가 뱅뱅 돌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돌고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이자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이다. 이 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원자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중성자(양심, 하나님, 부처님)의 속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성자는 모든 사물을 자유자재로 관통할 수 있고, 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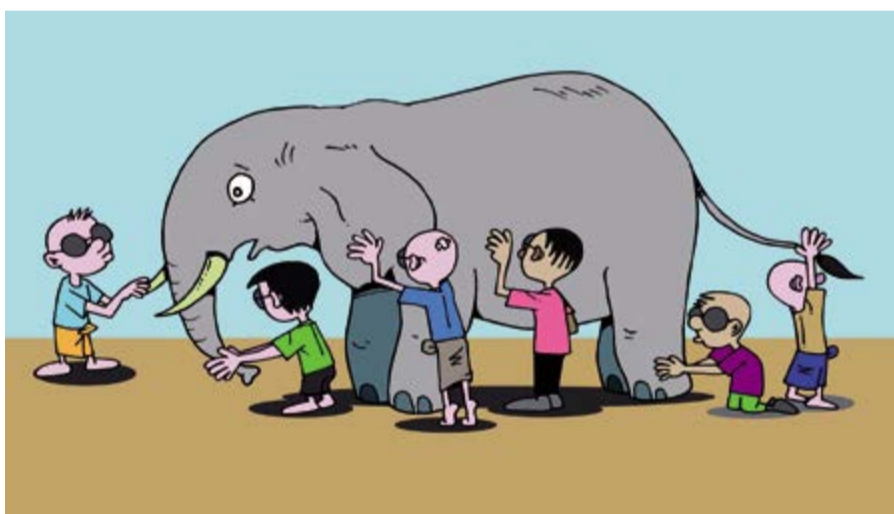
르기가 무려 백억 광년이나 되는 납의 두께를 순간에 투과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영원 전부터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중성자는 양성도 아니고 음성도 아닌 그야말로 중성(中性)의 성질을 띠고 있다. 사람의 마음으로 치자면 사랑과 미움, 좋음과 나쁨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심(中心)과 무한대로 빠르게 모든 것을 다 알고 행하는 전지전능의 속성을 지닌다. 그야말로神通 능력과 힘이 있으니, 모든 것을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여 최고조의 마음의 평화, 영원한 생명의 향연의 장(場)인 천국을 만든다. 그러한 세상은 먼저 마음이 영이자 신임을 알고, 그 마음을 제대로 부릴 줄 알아야 한다.

신은 영원하다

모든 존재는 유한하나 오직 신만은 영원하다고들 생각하기 쉽다. 과연 그럴까! 그것은 모든 존재의 실상의 비밀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인간과 모든 만물도 지금껏 영원하고 있다. 다만 개체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일 뿐이다. 왜 유한할까 하는 그 진실을 밝혀

신은 인간과 만물 속에서 역사한다



신이 무엇인지 마치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 하고 있는 현실이다

알 때, 비로소 인간과 만물도 신이라는 깨달음의 탄성이 나올 것이다. 본래 인간과 만물은 영원하였으나, 파괴와 멸망 거지와 사기의 조작자(마귀)에 의하여 그 영원한 본성을 상실하게 되는 기막힌 슬픈 역사가 있었다. 항상 기쁘고 즐겁고, 시공을 초월해서 자유자재하며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전지전능한 존재가 오늘날과 같은 만물과 인간으로 전락되었다. 이러한 놀라운 진실을 사람들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슬픔과 고통,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원래 신이었던 인간을 무지와 무능의 감옥에다 억만 겹으로 에워싼 상태로

움아매어 놓은 마귀의 계계를 그 누가 알겠는가!

기나긴 인류사를 통하여 기록된 지혜의 보고(寶庫)에는 이러한 예리한 통찰력에 의한 진리를 단편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거지와 위선의 탈을 쓴 악의 무리들이 힘과 권력을 쥐고 휘두르니, 진실은 묻히고 거짓이 난무하는 죄악세상이 되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인간 속의 신성과 그 전지전능성을 불신하게끔 하고, 오직 돈과 물질과 오감의 쾌락만 탐닉하는 가증한 짐승(유한한 가치관)으로 안주케 세뇌시킨다.

신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

파괴와 멸망의 신도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지만, 사랑과 평화와 영원한 생명의 신도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 파괴와 멸망의 신의 앞잡이가 욕심과 이기심을 가진 자이고, 영원한 평화와 생명의 화신(化身)이 이타적 사랑을 품은 양심적인 사람이다.

이 세상은 무슨 마음(靈, 心神)이 지배하고 있는가? 선하고 의로운 양심가가 다스리는 살기 좋은 세상인가, 아니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심쟁이가 다스리는 지옥같은 세상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금세 알게 될 노릇이다. 하지만 가증한 악의 무리들이 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갖은 방법으로 진실을 가리고 왜곡하여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모든 경전에서는 참 사람이라면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하고, 지혜와 총명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현재 이 세상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파괴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평화와 행복의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양단간에 놓여 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 이 세상을 지옥을 만들 것인가, 천국을 만들 것인가의 주역은 다른 존재가 아니다. 바로 신의 그릇인 인간에게

달렸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원하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

여전히 전지전능한 신이 우리를 구원하고 화평케 해줄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과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특히나 모 종교단체에서 절규하는 전지전능한 신이 우리를 구원하고 심판하여 천국에서 살게 해줄 것이라는 사기꾼의 헛소리를 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편한 것은, 욕심쟁이가 많은 세상은 고통과 불행이 차고 넘치는 지옥같은 세상이 빛어질 것이고, 양심적인 사람이 많이 살면 평화와 행복과 사랑이 차고 넘치는 천국같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전자의 사람 속에 역사하는 신은 분명 파괴와 멸망의 신인 마귀가 역사하는 모양새일 것이고, 후자의 사람 속에 역사하는 신은 정녕 평화와 영원한 생명의 신인 하나님(부처님)이 역사하는 신풍경일 것이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어떠한 신의 편에 서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오호라! 신은 바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